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2호 [루게 제26126호] 주제 107 (2018)년 9월 9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성원들, 도당위원장들,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무력기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동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

족으로 꽃없이 빛내어나갈 애국열의에 찬만 되어있었다. 본사정치정보단

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들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들 드리시였다.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은 당중앙의 령도론 총직하게 받들고 공화국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빛과 필생의 념원이 어진 내 나라, 내 조국을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꽃없이 빛내어나갈 애국열의에 찬만 되어있었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러시아연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활렌즈나 이와노브나 마드비엔코 러시아연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의장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다음 기념촬영을 하시고 친선적인 대화를 하시였다.

마드비엔코의 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체류일정에 대하여 깊이 관심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였다.

석상에서 러시아연방평의회 의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보내 온 러시아연방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푸틴대통령의 따뜻한 인사와 진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마드비엔코의 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푸틴대통령과 로씨야인민의 이름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총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고 귀국을 방문하여 뜻깊은 경축행사에 로씨야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이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축하의 인사와 훌륭한 진서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대통령과 로씨야인민들에게 보내는 우리 당과 정부, 인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로씨야 연방평의회 의장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

시한번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로씨야지도부가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연방평의회 대표단을 파견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로씨야 연방평의회 의장과 담화하시면서 반도와 지역정세에 대한 로씨야지도부의 의중과 립장을 청취하시고 정세의 안정적발전을 위한 촉념은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반도지역과 세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데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함께 해나갈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시였다.

담화에서는 또한 선대지도자들이 마련

해주신 전략적이며 친동적인 조로친선관계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지속적으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의외로상간 협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쌍무관계를 보다 밀접히 하고 확대강화해나갈데 대한 두 나라 최고지도부의 립장과 의지가 피력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마드비엔코의 장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우리 나라 제류기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뜻이 말씀하시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정보단